

■ 쿠바 음유시의 진화:

전통 트로바에서 누에바 트로바까지

정 승 희

누에바 트로바(Nueva Trova)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절정을 이룬 라틴아메리카의 새노래 운동, 즉 누에바 칸시온의 가장 중요한 흐름의 하나로, 쿠바 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노래 운동이다.

‘트로바’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노래로 부르기 위해 쓴 시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11세기 프로방스 지방에서 연원하여 12세기에 절정을 이룬 음유시인(troubadour)들이 쓰고, 노래하던 시를 말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져다 준 이러한 중세 유럽의 전통은 중남미 전역에 자리잡으며 토착화되었고, 쿠바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쿠바 섬의 동쪽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쿠바는 쿠바의 전통 트로바 중심지였고, 페페 산체스(1856~1918), 신도 가라이(1867~1968), 마리아 테레사 베라(1895~1965) 등의 전통 트로바의 계승자들이 19세기를 거쳐 20세기까지 존재해왔다.

아프리카 리듬에 연원을 둔 다양한 쿠바의 춤곡 리듬과는 또 다른, 서정적인 쿠바 음악의 전통이 단절되지 않은 채 이어져 왔고, 그 덕분에 누에바 트로바의 음악가들이 기타 하나 들고 전통의 형식을 다시 가져와 사랑, 정치, 혁명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담긴 노래를 할 수 있었다.

누에바 트로바가 탄생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1959년

성공한 쿠바 혁명이다. 혁명의 맥락 속에서 언급할 만한 가수로 카를로스 푸에블라(1917~1989)가 있다. 1930년대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한 그는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한 혁명이 성공한 순간을 ‘이런 때 피델이 왔네’라는 노래로 만듦으로써 역사적인 순간을 노래로 기록했다.

그들은 민중들의 등을 치며 잔인한 방법으로 계속 착취하려고 했지, 이런 때 피델이 왔네./ 즐기는 것은 끝났네, 사령관이 도착했고 놀이를 그만두라고 명령했네.

‘영원하라’ 역시 체 게바라가 65년 쿠바를 떠날 때 만든 곡으로 그의 곡 중 가장 널리 알려졌다.

누에바 트로바는 쿠바 혁명이라는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지만, 이름을 갖고 하나의 운동으로 공고화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와 단계들을 거쳤다. 누에바 트로바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문화 기관, 아메리카의 집(Casa de las Américas)과 이 기관을 이끌었던 아이데 산타마리아의 전폭적인 지원이었다. 아메리카의 집은 혁명 직후 1959년 4월 28일 세워진 쿠바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라틴아메리카 제 나라들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다양한 행사를 꾸리고 문화 부분의 상을 제정하여 쿠바 혁명 문화 정책의 상징이 되었다. 1980년 자살할 때까지 초대 관장을 맡은 아이데 산타마리아는 새로운 음악 언어를 모색해보려던 젊은 음악인들을 격려했으며, 그들에게 아메리카의 집의 공간을 적극 제공했다. 특히, 1967년 아메리카의 집에서 주관한 제1회 국제 저항음악 모임은 결정적이었다. 행사는 7월 24일에서 8월 8일 사이에 열렸고, 16개국의 음악인들이 참여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었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누에바 칸시온이 태동하던

때였다. 행사가 끝나고 바로 그 해 10월 아메리카의 집에서는 저항 음악 공간이 만들어져 젊은 음악인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실비오 로드리게스(46년생), 파블로 밀라네스(43년생), 노엘 니콜라(47년생)가 이 모임의 핵심 멤버였고, 아직 노래 운동으로서 이름을 갖기 전이었지만 1968년 2월 18일 아메리카의 집에서 이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한 공연을 누에바 트로바의 기점으로 잡는다. 이 공간에서 관객의 호응을 받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저항음악 공연이 열렸고, 이는 종종 텔레비전으로도 방영되어 쿠바 전역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2년 정도 지속되었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쿠바 음악 운동의 새로운 중심은 1969년 만들어진 '이카익 음향 실험 그룹'인 헤스(GES: Grupo experimental sonora del ICAIC)로 옮겨 간다. 이 그룹은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통해 이카익(ICAIC: 쿠바 예술·영화산업 위원회)이 만들어내는 영화의 음악을 담당할 전문 음악가들을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당시 이카익을 이끌고 있던 알프레도 게바라가 브라질을 방문한 뒤 브라질 대중 음악에서 일어나던 지각변동, 즉 브라질 대중 음악 운동(MPB)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이 프로젝트를



누에바 트로바의 주역들. 왼쪽부터 실비오 로드리게스, 노엘 니콜라, 파블로 밀라네스. 아래 사진은 1967년 아메리카의 집에서 열린 저항음악 콘서트 실황 음반.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실비오, 파블로, 노엘, 에두아르도 라모스, 세르히오 비티에르 등이 헤스 그룹을 이루었고, 이후 사라 곤살레스, 아마우리 페레스 등이 합류했다.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레오 브라우어가 헤스의 책임자로서 그룹에 모인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멤버들은 초기 1년 동안 혁신적인 방식으로 집중 훈련을 받으며 쿠바 전통 리듬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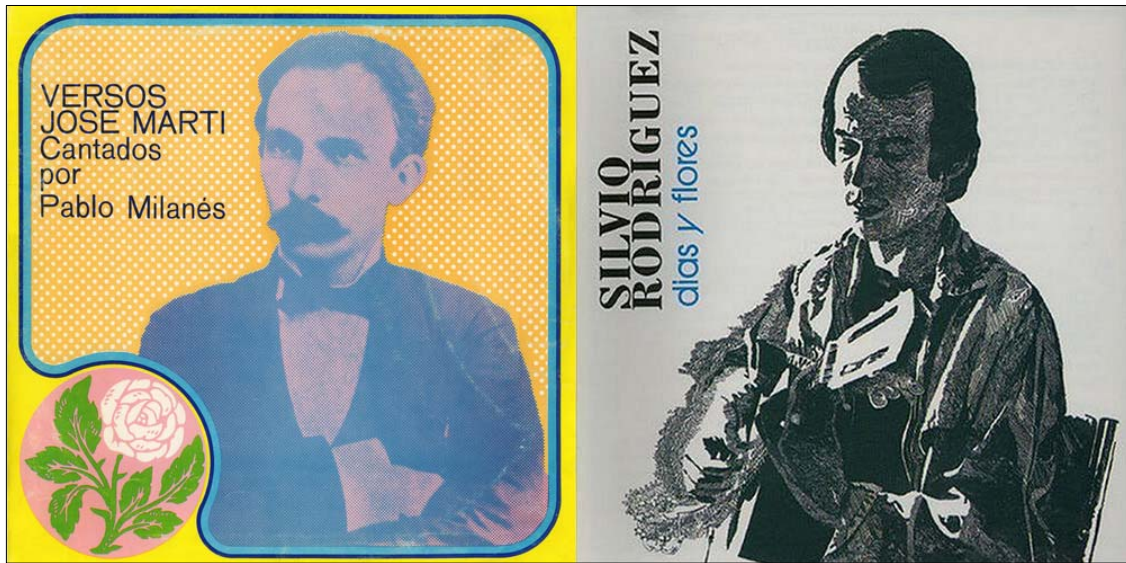


grupo de EXPERIMENTACIÓN SONORA/IGIC 2

1974년 헤스(GES)의 공동 음반

아니라 재즈, 클래식, 록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악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공부했다. 이를 통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멤버 전원이 영화 음악 악보를 쓰거나 곡을 오케스트라 연주용으로 편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그들의 음악은 점차 이카익의 다큐멘터리와 장편영화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레오 브라우어가 더 이상 헤스를 맡지 못하게 되자 2년 정도의 소강상태가 있었고, 여러 멤버들이 탈퇴하고 바뀌는 상황에서 에두아르도 라모스의 주도로 76년까지 지속되다가 헤스는 마무리되었다. 결과적으로 헤스는 쿠바 영화뿐만 아니라, 누에바 트로바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축적된 실험과 인력을 통해 70년대와 80년대의 쿠바 음악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6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오던 이러한 일련의 음악적 움직임은 1972년 12월 2일 젊은 공산당원 연합(UJC)의 후원으로 만사니요에서 열린 행사에서 누에바 트로바 운동(MNT)으로 공식화되었고, 누에바 트로바의 멤버들은 헤스의 공동 작업을 점차 뒤로하고 솔로 음반을 내기 시작한다.



파블로 밀라네스와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첫 독립 음반 <호세 마르티의 시 Versos José Martí>(1973)와 <나날과 꽃들 Días y flores>(1975)

이미 많은 곡을 작곡해두고 헤스를 통해 녹음 경험도 많았던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1975년 첫 독립음반 <나날과 꽃들>을 냈다. 피그스만 침공을 다룬 노래 <히론 해안>에서 그는 시인과 음악가, 역사가에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물으며, 지식인들에게 더 엄정한 역할을 요구하며, ‘히론 해안’호(號)에 타고 있는 쿠바 민중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히론 해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사주한 용병들이 쿠바를 침공한 곳이자, 실비오가 4개월 동안 승선했던 고기잡이배의 이름이었으며, 노래 가사에서는 쿠바라는 섬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역사를 공부하는 동지들이여, 진실이 되어야만 하는 완고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는 묻고 싶네. —내겐 너무나 절박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경계를 존중해야 하지? 누군가가 먹을 것을 훔쳤는데 그 대가로 생명을 내놔야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까지 우리는 진실을 밀고 나가야 할까? 우

리가 알고 있는 건 과연 어디까지인 거지? ‘히론 해안’ 호의 사람들이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만을 바랄 뿐.

파블로 밀라네스 역시 1973년 호세 마르티의 시를 부른 첫 독집 음반 〈호세 마르티의 시〉를 냈다. 쿠바 역사와 쿠바 혁명에서 호세 마르티가 가지는 상징성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사라 곤살레스와 아마우리 페레스 역시 각각 78년도에 호세 마르티의 시에 곡을 붙인 음반을 냈다.

누에바 트로바는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기에 가사를 이해하고 음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선, 누에바 트로바의 가사는 시적인 가치가 높고, 매우 서정적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혁명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찬양이나 선전은 거의 없으며, 사랑 노래도 가장 빈번한 테마 중 하나다. 하지만 누에바 트로바의 가사를 보면 체제에 대한 일말의 비판이나 혁명 담론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은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파블로 밀라네스의 82년도 음반 〈나는 여기 남겠네〉의 가사들은 누에바 트로바의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잘 드러난다. ‘믿음의 행위’에서 그는 마치 수줍은 사랑고백처럼 혁명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난 너를 믿어. 모순에 가득 차 있고 해결책도 찾아나가지. 항상
난 너를 믿어./ 난 너를 믿어. 너의 손을 잡고, 너를 믿으며 걸
어가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믿
어. 내가 신을 믿듯 네가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네. 나는 너, 혁
명을 믿네.

‘나는 여기 남겠네’에서는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며 쿠바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은 쿠바가 줄 수 있는 소박하고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쿠바에 남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어떤 초록이 너를 밝혀줄까? 어떤 촉촉한 땅, 그 냄새와 넉넉함을
 널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어떤 바다가 너를 목욕시켜줄까?
 어떤 태양이 너를 안아줄까? 어떤 종류의 자유를 그들이 네게
 줄까?

누에바 트로바의 양대 산맥인 실비오 로드리게스와 파블로 밀라네스는 80년대 초중반까지 전성기랄 수 있는 좋은 음반들을 만들어냈지만, 체제의 공인을 받는 가수로서 치열함이 점점 줄어들고, 밀도가 낮은 동어반복적인 음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는 어쩌면 그들이 음반을 녹음하는 데도, 혁명 정부의 인정을 받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데도 더 이상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누에바 트로바에 가장 늦게 합류한 젊은 세대들은 달랐다. 이 새로운 세대에는 산티아고 펠리우, 카를로스 바렐라, 헤라르도 알폰소, 프랭크 델가도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60년대에 출생한 그들은 혁명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며, 70년대 말 아주 늦게 누에바 트로바에 합류했고, 80년대에는 혁명에 대한 낭만적인 시선이 걷힌 후 쿠바에 산적인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1세대와 그들을 차별하기 위해 80년대부터 노비시마 트로바(Novísima Trova)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누에바’(새로운)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않고 ‘노비시마’(더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서도 볼 수 있듯 그들은 새로운 세대로서 문제의식이 달랐을 뿐, 누에바 트로바에 대한 부정이나 극복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누에바 트로바가 사라지면, 노비시마 트로바는 보고, 기록의 성격을 많이 띤다. 일상화된 빈곤과 결핍, 쿠바를 떠나고 탈출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 사이의 이



노비시마 트로바의 바렐라와 델가도

산가족 문제, 과도한 정치 선전에 대한 염증도 노래의 테마로 등장한다.

노비시마 트로바로 분류될 수 있는 최초의 음반은 1984년 산티아고 펠리우가 아르헨티나에서 낸 모음집 <삶>이다. 당시 쿠바에는 스튜디오가 하나밖에 없었고, 누에바 트로바의 거물들에게만 음반을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젊은 세대들은 쉽사리 녹음 기회도 갖지 못했기에, 그들은 많은 음반을 외국에서 녹음해야만 했다.

현재 노비시마 트로바의 가장 대표적인 가수로는 카를로스 바렐라와 프랭크 델가도를 꼽을 수 있다. 바렐라는 1963년 아바나 생으로, 1980년에 누에바 트로바에 합류했다. 그는 혁명 체제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쿠바에 산적한 사회·정치 문제들을 강하게 노래하며, ‘반항’의 상징으로 항상 검은 옷만 입는다. 그의 곡 중 가장 유명세를 탄 것은 ‘윌리엄 텔’이다. 윌리엄 텔의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머리에 얹어둔 사과가 지겨워졌고, 아버지의 활을 써서 이젠 자기가 활을 쏠 차례라고 말한다.

윌리엄 텔은 자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네./ 어느날 아들이 머리에 사과를 얹어두는 게 지켜워져 뛰쳐나가자 아버지는 아들을 욕했지./ 곧 아들한테 자신의 활숨씨를 시험해볼 요량이었거든./ 윌리엄 텔, 당신 아들이 자라서 화살을 쏘기를 원하네. 이제 아들이 자신의 용기를 시험해볼 차례, 당신의 활을 사용해서.”

많은 이들이 이 곡을 피델 카스트로를 향한 비판으로 이해했고, 그 점에 열광했지만, 이런 여론이 불거지자 바렐라는 직접 나서서 그 곡은 일반적인 세대 간의 갈등, 세대교체로 인한 성장통을 다룬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어쨌든 그도 쿠바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카스트로 체제를 부정하는 수위의 비판은 불가능했다. ‘백목원’(Circulo de tiza)같은 노래에서는 앙골라전에 파병되어 죽은 자신의 친구와 마이애미로 탈출하기 위해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다 죽은 또 다른 친구를 추모하며, 정치 선전에 신물이 난 세대의 조용한 분노를 담는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친구 하나를 잃었고 이 나라에서 도망쳐가던 다른 친구는 바다가 삼켜버렸지./ 세계는 누구누구에 대항하는 전쟁을 선포하네. 내가 믿는 종교에는 십자가도 신전도 없지만 언젠가는 이 안개가 걷히도록 나는 기도할 것이네./ 이제 누구를 적으로 싸우는 지, 뭐에 반대하는 지도 난 못 알아듣겠어. 하지만 나는 기도할 것이네, 언젠가 이 안개가 걷히도록.

프랭크 텔가도는 1960년생으로 1979년에 공식적으로 누에바 트로바 운동에 들어갔다. 그는 누에바 트로바가 쿠바 혁명의 “사운드 트랙”이라면 노비시마 트로바의 젊은이들은 쿠바 현실에 대

한 “비판자들”이라고 말한다. 바렐라에 비해 델가도는 좀 더 유머 감각을 갖고 사물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듯하다. ‘트로바-투르’ 같은 곡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노래 부르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유머러스하게 그린다. ‘전기가 나가면, 내 사랑’에서는 전력부족으로 정전이 일상화된 쿠바의 결핍을 노래한다.

전기가 나가면, 내 사랑, 내 할머니는 또 그 나쁜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나한테 정부 욕을 시작할 테고, 빨갱이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재빨리 대답하겠죠, 제국주의와 석유수출국기구, 시장경제의 잘못이라고./ 내 사랑, 전기가 나가면 사회 치료의 차원에서 머리가 너무 열 받는 일이 없도록 모닥불 앞에 앉아 우리 대화를 해보도록 해요, 아주 오래 전 네안데르탈인이 이야기했을 법한.

수시로 정전이 되고, 물질적으로 결핍된 쿠바의 일상과 생존은 석기시대에 비유된다. 생존 앞에 혁명은 수사로 남았고, 삶은 정치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힘든 상황을 견뎌나가는 데 유머 감각은 필수이다.

이처럼, 누에바 트로바에서는 혁명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고 쿠바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쿠바의 현실은 모호한 시적 언어 뒤로 점점 숨어버리지만, 노비시마 트로바는 쿠바의 결핍된 일상과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소극적이거나 노래했다는 의미가 있다. 녹음을 원한다고 해도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는 마치 중세 음유시인의 노래인 양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더욱 간절한 의미를 획득했다.

쿠바 혁명의 맥락 속에서 탄생한 누에바 트로바는 기타 하나로 노래하는 쿠바의 전통 트로바의 틀을 빌려와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담아 전통을 새롭게 했으며, 진부한 상업음악의 문법을 깨고 서정성 풍부한 가사와 높은 음악성을 추구하려는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큰 족적은 남겼다. 그 속에서 실비오와 파블로라는 쿠바 음악의 큰 거목이 나왔고, 80년대에는 노비시마 트로바가 등장해 혁명 이후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였다.

이제 쿠바 혁명은 50주년을 맞았고, 혁명이 성공하고 제도화 되던 시기의 정치적·역사적 맥락들은 사라졌다. 누에바 트로바는 더 이상 새롭지 않고, 그 의미들도 소진되었지만 누에바 트로바라는 이름을 버리지도 못하고, 여느 노래 운동처럼 자연스레 소멸해가지도 못한 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누에바 트로바가 쿠바 혁명이라는 씨앗에서 나왔기 때문에 혁명을 배반하지 못하고 혁명 체제와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태생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승희 - 칠레대학교 중남미 문학 박사과정 수료. 역서로 크리스티나 페리로시 『쓸모없는 노력의 박물관』, 크리스티나 페리로시 『금지된 정열』 (출간 예정), 에드문도 데스노에스 『저개발의 기억』 (출간 예정) 등이 있다.
